

## 큰 기쁨의 좋은 소식

### 눅 2:8~14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8~14)"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이는 마땅히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막 2:17)

#### **구유에 나신 메시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모든 세상을 이스라엘이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 만유의 왕이 위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온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신다는 증거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강보에 싸여 말 구유에 놓인 아기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갓난 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아이가 만유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주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핏박과 멸시 가운데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목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징표를 보고도 거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징표로서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기 예수는 하나님과 목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 세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예수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율법이나 조건을 더 이상 인류에게 제시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적인 포기는 곧 사랑입니다. 인

류를 사랑하기에 자기의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인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목자들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을 구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병들었다면 의사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고, 학생이라면 선생님일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있어 구세주의 모습은 아기 예수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할 아기 예수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를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권세를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얻고자 하면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맙니다. 병고침을 받고, 배불리 먹었던 우리는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사라지면서부터 예수를 배척하고 버립니다.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드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의 선택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의지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아기 예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구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세 번째, 아기 예수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유는 말의 먹이통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 6:5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뜯어 먹힐 것을 아시고 구유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먹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의 무력함보다 십자가에서 더욱 그 무력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함 속에서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력한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토록 무력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십자가의 길을 걷어가는 예수의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 능력, 부활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

말구유에 놓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십니까?

14절이 결론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지만 스스로의 제약에 묶여 있는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먹이가 되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만족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천군 천사는 이것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떤 예수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전능함을 포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찾아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저희가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말기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위해 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